

“ 생생한 감동의 소리를 고객에게! ”

- (주)드웰 -



(주)드웰 김상욱 대표이사

(주)드웰(대표이사 김상욱 www.dwel.co.kr)은 지난 1989년 “동원전자”를 모태로 설립된 기업으로써 설립된 이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국내 음향·정보통신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오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 비해 기술력과 인프라에서 뒤떨어진 과거에는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주)드웰은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와 인재육성에 힘써 국내산업을 육성시켰다. 특히 방송음향, 영상멀티미디어 시스템, 정보통신 관계 전문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제품 품질을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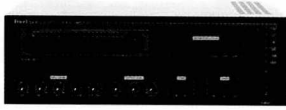
(주)드웰은 자동안내방송, 음성회의설비, 일제 통보방송, 음성합성장치, 국제회의용 다국어 동시통역시스템 등 종합음향시스템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회의장, 연수교육 설비, CCTV시스템, 원격지 감시 및 녹화제어 시스템, CATV시스템, 영상회의의 시스템, 편집 및 카피 시스템, 종합 A/V시스템 등 종합영상시스템도 관련 산업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P.A RACK

김대표는 “큰 운동장이나 강당, 다목적홀 등에서 다수의 청중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선 그만큼의 대형 음향시설과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설계와 시공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스템 전문가의 진단과 설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주)드웰은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드웰은 현재 대중전달용 음향시스템 가운데 전관방송용 RACK 타입의 제품을



포터블앰프
(DPA-2324CT)



CCTV Camera



CATV Parabola
Antenna



회의용 마이크
(LBB-3331)

생산하고 있다. 또한 타사 제품에 비해 크기가 절반정도이나 품질면에서는 앞서는 렉 시스템을 개발,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음향영상과 통신부문을 통합한 SI(통합시스템) 부문에도 진출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대표는 “앞으로 통신 관련 전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동남아나 남미 등 해외 시장 진출에 주력할 것이며, 향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드웰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3년전 신사옥으로 이전한 (주)드웰은 당시 제2의 창업원년을 선포하고 처음으로 자체 제품을 생산, 설계 · 시공 현장에 투입하였으며, 또한 외국의 유명 디지털 시스템 장비를 직수입,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내 굴지의 유명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게 됐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판로개척을 고민하는 김대표는 “현재 한정되어 있는 특수음향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신기술 제품개발에 주력 하면서 축적된 기술력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이겠다”며 자신감에 찬 모습을 보였다.

또한, (주)드웰의 고객만족 경영은 남다르다. 김대표는 “(주)드웰은 회사의 발전과 방송음향, 영상의 멀티 미디어 시스템, 정보통신 관계 전문분야의 충실한 역할 감당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해를 거듭하며 축적한 오랜 노력과 소중한 경험으로 고객들에게 보다 큰 만족을 줄 것이다”며 “점점 더 다양하고 신속한 기술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경쟁요소를 확충, 고객과 더불어 발전하는 기술과 사람중심의 회사로 발전 하겠다는 모토로 일류 경쟁력의 초석이 되어 고객중심의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고객중심의 경영이 곧 회사의 발전이라는 경영전략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신뢰 받는 중견기업으로 탄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며 향후 관련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라고 (주)드웰의 비전을 밝혔다.